



# 일파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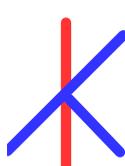
KT새노조 소식지 2015.8.26

www.humankt.org

VOL. 26



## 허수경영, kt를 좀먹는다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KT새노조

독자투고&제안 | newnojo@naver.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242401-04-305834  
(KT새노동조합)

# 허수경영, kt를 좀먹는다

kt새노조가 고위 임원들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허수경영을 내부고발을 통해 확인했다. 8월 25일 kt새노조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biz영업부가 특정업체 명의의 인터넷 4천여 회선에 대해 감액을 통해 요금을 약관 가격의 절반 이하로 공급해주면서 실적을 부풀린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통해 해당 임직원들은 상위 고과를 챙기고 일부는 승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액규모 9억 원이 넘어

일단 감액 규모가 충격적이다. kt새노조가 확인한 감액 규모만도 지난 15개월 사이에 9억 원이 넘는다. 정상적으로 청구된 요금 17억여 원 중 절반이 넘는 무려 9억여 원을 감면해주었고 한 달에 1억 원을 넘게 감액해 준 달이 있는가 하면 정상 요금의 83%를 감액해 준 달도 있었다. 물론 모든 감액사유는 통신 중 절단이었다. 이로써 이 업체는 요금을 절반도 내지 않고 kt 인터넷 4,000여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해당 업체의 요금 감면 내역과 감면 사유

년 월	실제요금	감액 금액	감액 후 청구액	감액 비율
<b>2015.07</b>	<b>162,723,428</b>	<b>108,138,668</b>	<b>54,584,760</b>	<b>66%</b>
2015.06	116,524,760	47,898,000	68,626,760	41%
2015.05	99,611,380	48,400,000	51,211,380	49%
2015.04	97,979,500	35,072,500	62,907,000	36%
2015.03	96,825,970	39,096,870	57,729,100	40%
2015.02	98,292,340	29,738,000	68,554,340	30%
<b>2015.01</b>	<b>141,518,870</b>	<b>107,587,500</b>	<b>33,931,370</b>	<b>76%</b>
2014.12	115,752,290	95,738,580	20,013,710	83%
<b>2014.11</b>	<b>107,244,620</b>	<b>70,462,500</b>	<b>36,782,120</b>	<b>66%</b>
2014.10	168,718,890	44,338,500	124,380,390	26%
2014.09	97,931,813	37,427,193	60,504,620	38%
2014.08	105,767,680	49,176,000	56,591,680	46%
2014.07	92,680,760	43,179,500	49,501,260	47%
<b>2014.06</b>	<b>97,515,020</b>	<b>63,653,100</b>	<b>33,861,920</b>	<b>65%</b>
2014.05	101,079,870	29,865,000	71,214,870	30%
<b>2014.04</b>	<b>84,817,736</b>	<b>58,880,456</b>	<b>25,937,280</b>	<b>69%</b>
<b>합 계</b>	<b>1,784,984,927</b>	<b>908,652,367</b>	<b>876,332,560</b>	<b>51%</b>

상품명	요금항목명	차월증감금액	청구반영금액	증감사유	증감상제사유	반영상태
Megapass ADSL 모든상품	서비스이용료	-25,500	-25,500	통신중절단	전속불량	반영완료
반영청구일	청구계약ID					
2015/03/10	10724561***					-25,500

증감사유	증감상제사유
통신중절단	전속불량

## 고위 임원이 관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대규모 허수경영

이렇게 요금 감액으로 특정업체에만 요금을 깎아주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게다가 감액은 회사 내부 규정으로 권한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 월 1억 원 이상이면 최소한 본부장 급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는 곧 이번 대규모 감액이 직원 개인의 비리가 아닌 최소한 본부장 이상의 고위 임원들이 관계된 매우 조직적인 허수경영임을 암시한다.

구분	직책	조정금액 한도	유의사항		
사내채널	지사 / Biz영업부	부장	1,000,000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천만 이상 건 Biz사</li> <li>문서 협조후 고객</li> <li>1억 이상건 Biz사업기</li> <li>이관</li> </ul>	
		지사장	5,000,000원 이하		
	고객본부	Biz사업담당	10,000,000원 이하		
		본부장	1억원 이하		
	Biz사업본부	담당	1억 ~ 3억원 이하		
	Biz사업기획담당	본부장	3억원 초과		현장처리 불가건
	Biz사업본부	팀장	100,000원 이하		비대면 고객 Care 50만원 초과시
	BizRC센터	센터장	500,000원 이하		지사(Biz영업부)이관
	본부장	1억원 이하			
	담당	1억 ~ 3억원 이하			
본부장	3억원 초과				

### 감액 관련된 사내규정

### 해당업체는 경쟁사 관련업체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대규모 감액 혜택을 몰아준 회사가 경쟁사와 관계된 통신회사라는 점이다. 특히 이 업체의 직원은 437명(2014년 말 기준)에 불과한데, 이 업체가 kt로부터 반값에 제공받은 인터넷은 4,000회선이 넘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경쟁사 관련 업체가 ‘반값에 제공받은 kt 인터넷을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감액에다가 인터넷 개통 시 받게 되는 각종 보상금이 인터넷 1회선당 최소 20만원(현재기준)임을 감안하고 여기에 유지수수료(매달 요금의 대략 7% 정도) 등까지 챙길 수 있었다면, 이 회사는 kt로부터 사실상 공짜로 인터넷을 다량 공급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인 것이다. 결국 회사는 골병 들고 관련자들만 고성과를 챙기는 전형적인 허수경영이고 비윤리적 행태인 것이다.

## GIGA인터넷 허수개통 한 뒤 6개월 만에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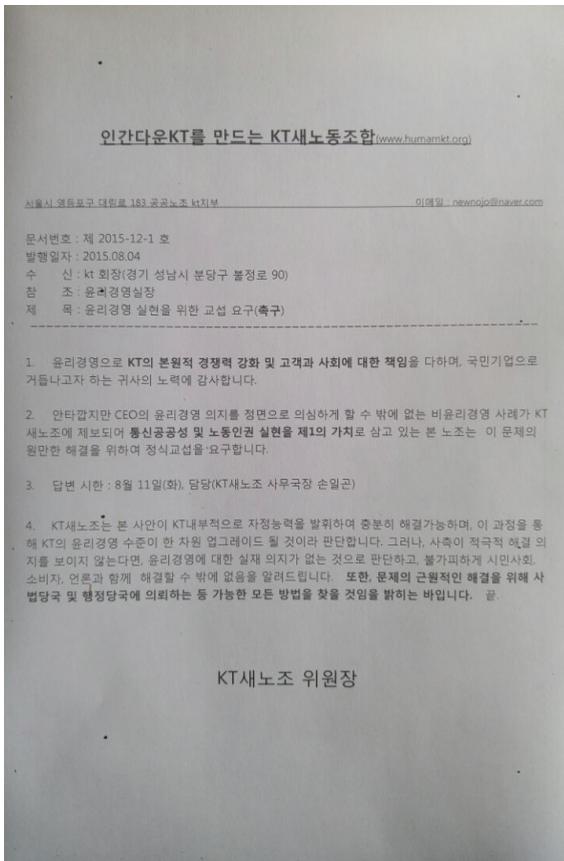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감액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점은 황창규 회장이 GIGA인터넷을 강조하며 실적압박을 강화하던 때, 혹은 임원들의 평가가 있던 연말, 분기말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GIGA인터넷 실적이 인사평가에 중요 사항이었던 지난 연말, GIGA인터넷이 집중 개통(148회선)되었고, 그 이후 6개월 만에 대부분(145회선)이 해지되었다. 물론 위약금 등은 감면처리하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해지 처리된 GIGA인터넷 모뎀을 회수하러 간 직원의 증언으로는 모뎀은 사용 흔적이 전혀 없이 박스에 깨끗하게 담긴 채로 kt 지사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었다. 현장 직원들은 “이 다량의 인터넷 회선은 실제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며 단지 실적 챙기기를 위해 전산 상으로 개통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전산 상으로만 개통처리 됐어도 가설에 따른 비용도 지출했을 것이고 새 모뎀은 줄지에 중고로 처리되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다량 허수개통을 통해 임원들은 실적을 챙겼겠지만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거야 말로 해사행위이고 명백한 배임 아닌가!



사용 흔적 없이 박스 채 회수된 GIGA 인터넷 모뎀

# kt새노조 윤리경영을 위한 교섭요구 거절한 황창규 회장

kt새노조의 기자회견 직후 회사는 “개인비리”이며 “내부조사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회사는 처음부터 이 허수경영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혹은 개인비리로 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kt새노조가 두 차례나 공문을 보내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황창규 회장은 끝내 거부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감액은 계속되었다. 도대체 노조에서 비윤리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교섭하자는데, 왜 황창규 회장은 이를 완강히 거부해서 결국 언론을 통해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했을까? 많은 이들은 그 이유가 황창규 회장의 성과급과 관련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황창규	대표이사	796	-

2. 산정기준 및 방법

구분	보수의 종류	금액	산정기준 및 방법
대표이사 황창규	근로소득	급여	143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며, 기준급과 직책급으로 구성된 기준연봉 총액의 1/12을 재직기간 중 균등 지급하였음
		상여	651 14년 성과에 대한 경영성과급(기지급분 제외)이며, 매출액,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회사 정상화, 미래사업 창출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준급의 0~250%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음 ※ '14년 계량 및 비계량 실적 - 계량: 매출액 17조 4,358억원 및 영업이익 3,332억원(특별명예퇴직에 의한 일시적 인건비 제외) 등 - 비계량: 무선/인터넷 등 핵심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융합형 GiG A 사업 선도를 통한 미래성장전략 제시, 고객최우선경영에 기반한 국민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
	복리후생	2 복리후생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복리후생 항목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항목을 합산하였으며, 건강검진비, 의료비지원금 등이 포함됨	
	퇴직소득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소득	-	해당사항 없음
	보수총액	796	-

kt새노조의 교섭요구 공문과 황창규 회장의 연봉 산정기준

## 황창규 회장 성과급 재정산해야

지난 1/4분기 황창규 회장은 성과급으로만 6억5천만 원을 챙겼다. 산정기준 중 가장 강력한 공적사항은 GIGA인터넷 선도였다. 그런데 이번 대량 허수개통이 밝혀짐에 따라 과연 황 회장이 챙긴 성과급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의 법률가들은 “이번 대규모 허수경영이 고위 임원들이 관계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조직관리를 제대로 못한 황 회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즉 황 회장에게 1/4분기 지급된 성과급은 반드시 재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014년 인사평가 무효화해야

또한 전 직원의 2014년 인사고과도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껏 kt는 이런 식의 허수경영에 의해 인사평가가 왜곡되기 일쑤였다. 이미 법원에 의해서도 kt의 인사평정이 무효화된 사례도 있었고 지금도 다수의 직원들이 소송 중에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번에 너무도 명백한 허수경영이 확인된 만큼 황창규 회장은 지금이라도 2014년 인사고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차등 지급된 각종 급여를 균등 재분배해야 한다.

### 대법 "특정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최저등급 부여는 부당"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입력: 2015.06.24 16:39



KT가 인력 감축을 목적으로 명예퇴직 거부자 등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해 인사 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구조조정과 저성과자 퇴출제가 부른 자기파괴적 비윤리경영

허수경영은 개인 실적을 위해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허수경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kt에 유난스럽게 비윤리적인 직원이 많기 때문인가? 아니다. kt새노조는 허수경영은 거둬들인 구조조정과 저성과자 퇴출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kt 노동자라면 누구나 지긋지긋하게 느끼고 있다, 지독한 실적압박과 저성과자 되었을 때 받게 될 노동인권침해의 고통을. 그러한 두려움 속에 은밀하게 지시되는 허수경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에 우리는 kt의 반인권적 기업문화와 허수경영은 쌍생아라 주장하며 허수경영의 해법은 곧 노동인권의 존중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윤리경영은 말이 아니라 노동 존중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사·보수제도 분야 2014년 단체교섭 협정 체결

### 3. 성과급체계 개선

⊕ 성과급체계 개선 (2014년 경영실적기준 2015년 지급부터 적용)

- 팀성과급 폐지 및 전사성과급 체계 개선

구분	지급률	차등 기준
전사성과급	250%±50%	· 부서간 차등 없음
부문성과급	250%±50%	· 부문, 실 등 CEO 직속 최상위 조직 평가결과
담당성과급	250%±50%	· 담당, 지사, 센터 등의 평가결과 (단, 직책자는 250%±100%)
팀성과급	"폐지"	· 팀 평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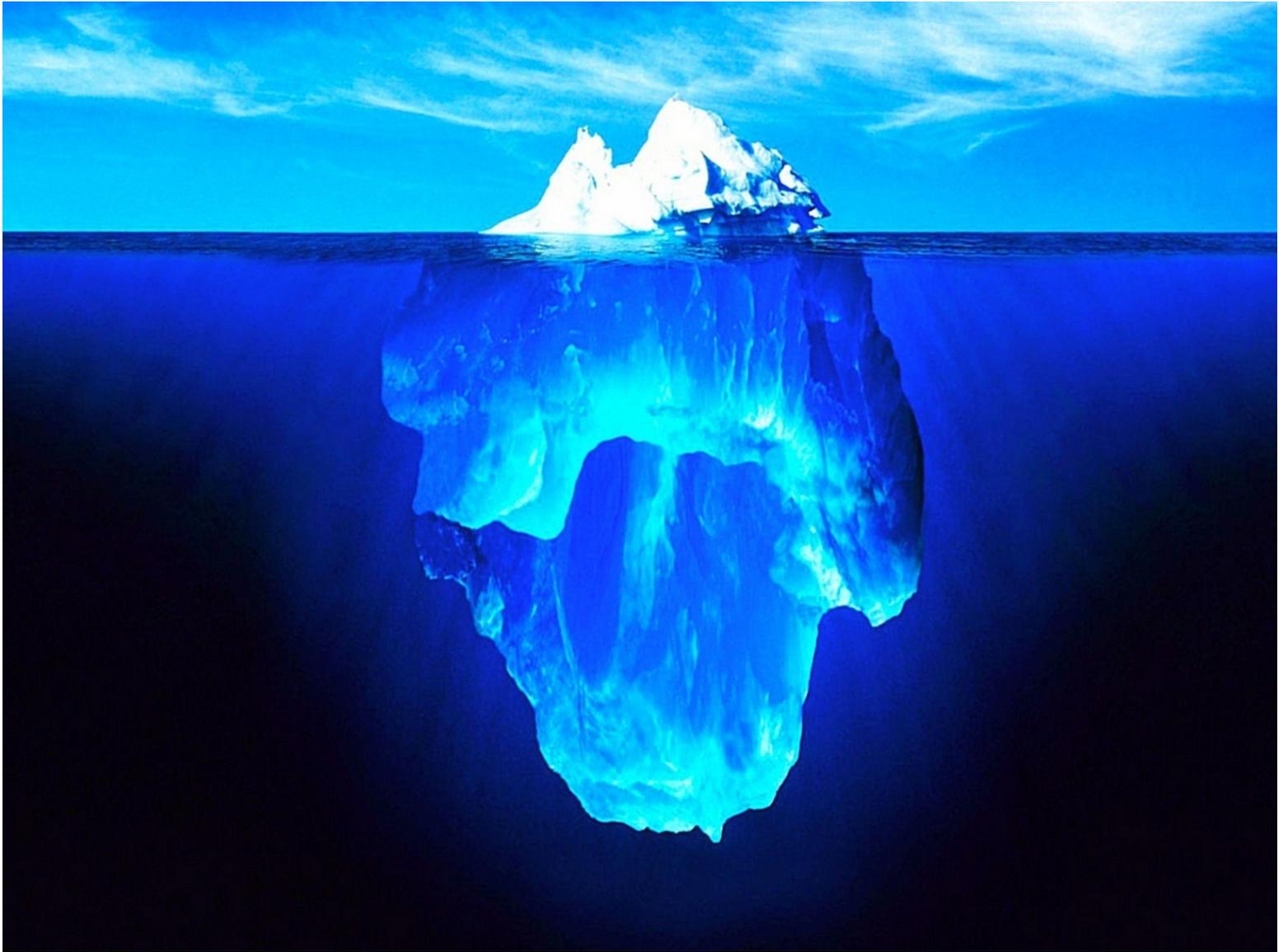
KT노조의 2013년 단협 설명서 중 면직조항 설명 내용

#### 6. 면직 항목 신설

- 주요 내용
  - 2년 연속 인사평가등급 F/F 중 업무실적이 직원 평균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대기발령 (대기발령시 교육, 과제 부여 등 생산성 향상 기회 제공)
  - 2회 이상 대기발령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직 가능
- 시행일 : 2013년 인사평가부터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있는 한 윤리경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 해당 건은 빙산의 일각



이번 기자회견 이후 현장의 반응은 “(이번 발각된 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감액을 통한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한 영업사원은 “허수경영으로 회사를 망치는 자들이 최고의 영업맨인 것처럼 큰 소리치면서 온갖 회사 지원 다 끌어들이며 결국 사리사욕 채우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이 소외되는 게 kt 기업문화 아닌가!”, “kt새노조가 차제에 허수경영을 뿌리뽑도록 앞장서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 영업일선의 팀장은 “나도 솔직히 약간의 허수개통 경험이 있다. 하지만 허수경영은 결코 개인비리만이 아니다. 해당 팀장 징계한다고 허수경영이 없어지지 않는다.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지상주의를 내려놓고 정도영업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로 전환 해야 한다”고 말했다.

## **kt새노조로 제보해 달라**

그렇다! 이번 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미 kt새노조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회사에 다시 한번 대화를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kt를 살리고자 하는 kt노동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허수개통과 관련된, 감액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kt새노조에 제보해 달라! 허수개통된 번호만 kt새노조 공식 이메일 계정(newnojo@naver.com)에 남겨놓거나 아니면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으면 kt새노조에서 성실하게 조사해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 **우리의 양심적 내부고발이 kt의 미래를 연다**

모두가 kt 미래가 암울하다고 얘기한다. 직원들은 사기를 잃은 지 오래고, 임원들은 썩었고, 경영진은 무능하다고 한탄한다. 노동인권은 실종됐고, 회사는 경쟁력을 잃고 표류한다고 모두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책임도 크다. 내부고발이라는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자! kt새노조와 함께 우리 모두가 kt의 미래가 되어보자!

---



# KT새노조와 함께해요!

## ▷ KT직원이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KT새노조 규약 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KT에 근무하는 직원과 통신 관련 산업 및 이에 관계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의 준수를 서약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 ▷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 ① KT새노조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 첨부파일 다운  
KT새노조에 보낸다~

 메일 : [newnojo@naver.com](mailto:newnojo@naver.com)

※ 보내주신 신청서를 KT새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② 조합비를 납부한다~

납부계좌 : [국민은행 242401-04-305834 \(KT새노동조합\)](#)

가입 형태	조합비	기타
KT새노조 조합원	4만원/월	기존 KT노조(제1노조)는 탈퇴 처리됩니다.